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전망

Propectives of the Database Industry

정문성
 현대정보기술 정보통신사업본부 이사
 Chung, Moon-Sung, Hyundai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Data Communication &
 Computer Networks Div.
 Director.

현재 한국 데이터베이스 이용자는 1980년 중반에 시작한 데이콤의 천리안이 20만 사용자를 갖고 최대 이용자로서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같이 갖고 있어서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7년 한국경제신문이 시작한 KETEL은 현재 한국 PC통신에 합병되어 하이텔로 16만 사용자를 갖고 있으며 1995년에 한국통신 지분의 반을 청산하게 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01410의 네트워크의 사용료 지불관계 등의 변수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용료의 수금문제 및 자

체 네트워크 구축 등이 변수라고 생각이 든다. 국내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참여한 것은 POS-SERVE이다. 포스테이타에서 시작을 했으나 1993년 말에 창립한 에이텔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8만 사용자를 갖고 있다. 한국통신이 한국 PC통신 지분청산후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위하여 HINET-P를 만들고 수백억의 투자로 자체 데이터베이스 제공자(IP)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베이스 등에 참여하고 있다. 01410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들의 사용료 수금대행을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국

적으로 패킷망을 갖고 있고 144K로 단말기 속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서 1995년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산업의 변수로 관심을 끌고 있다.

95년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새로운 움직임은 대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참여를 들 수 있다. 이미 알려진 것으로도 한진그룹의 한진정보통신(HIST)이 여행 정보를 근간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한전의 세일정보통신이 정부의 상역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참여를 선언했다. 삼성그룹의 SDS가 과천에 수백평의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준비중이고 내년 3월

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하여 BBS를 개발중에 있다. 중앙일보의 뉴스 서비스가 예상된다. 금호그룹 또한 아시아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행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시장에 참여가 예상된다. 현대그룹의 현대정보기술(HIT)은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01431을 받고 현재 무료 서비스로 하고 있는 HID-ATE를 확장, 새로운 BBS 시스템을 구축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2만 사용자에서 10만을 목표하고,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 개발중인 경제 데이터베이스 및 현재 서비스 중인 미니텔 등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그룹사에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95년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는 이제껏 네트워크에만 주력하던 대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이미 기본네트워크를 국내외에 갖고 있으며, 그룹내에 어느 정도 기본 사용자를 확보한 사항에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다른 신기술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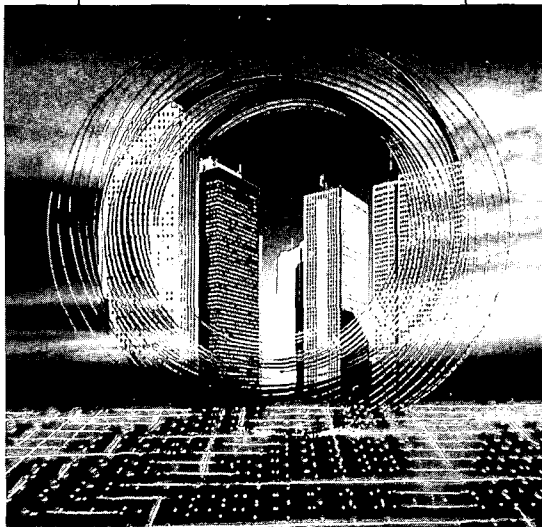
기존의 네프릭스 방법이 TEXT ORIENT사에서 TCP/IP나 LAN과의 접속통신기술을 포함, 앞으로 멀티미디어에 적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시작하고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의 기술혁신이 예상된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사용자가 30대 미만의 대학생, 중고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BBS가 그 주된 서비스 영역이었으나, 대기업의 참여로 인하여 일반 직장인에게도 급속도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을 포함한 국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활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국제화도 이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95년도에 새로 등

장하는 신규이용자들은 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대신 그룹내의 마케팅 및 시스템의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통신의 HINETP도 94년 말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나 활성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95년에는 현재 구조와 같이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 및 POS-SERVE의 순위로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것이나, 95년 말에는 순위의 변화가 예상되어진다. 014XY의 활성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안정화 및 기술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96년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있어서 춘추전국시대가 도립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ARBLE이 서비스가 시작되고 IBM 및 AT&T 등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인터넷 또는 Smart Network으로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될 것이 예상되고, 국내 95년에 시작한 신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업체도 강력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업체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어려운 길을 그런대로 걸어왔다. 신규 참여하는 대기업도 당장의 큰 이익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막대한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기존업체나 신규업체나 앞으로 3~4년간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어진다.

그러나, 키워진 국내 데이터베이스시장을 해외 데이터베이스업체에 넘겨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국내 데이터베이스업체와 합작으로 들어왔던간에도 막아야한다. 멀티미디어와 정보고속도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정보하부구조(NII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무수한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들어올 해외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국내 데이터베이스 업체가 막아야하고 정부는 이것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 사장의 한국방문의 뜻과 정부의 환영은 많은 의문성을

남기게 한다.

기간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하고 전화번호부 대신 단말기를 보급하여 성공한 불란서의 미니텔은 요즘 급격히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고 인터넷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 선진국 및 싱가포르 등 우리들의 경쟁국들은 국가정보하부구조(NII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위하여 전념하고 있다.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하이텔 단말기를 공급하고 수백억을 들여 하이텔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은 좀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간통신 사업자 정책에서 빨리 부가사업자 지원정책으로 미니텔 개념에서 빨리 국가정보하부구조(NII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개념으로 기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민간 부가사업자에게도 광케이블을 쓸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분야에 참여하여 2000년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공개 또한 요구되는 정책이고 고속도로를 계속 건설하고 아파트를 계속 건설하는 것보다 광케이블의 이용으로

재택근무의 가시화로 사회간접자본의 절감이 초고속통신망의 목적이라면 미국의 국가정보하부구조(NII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기본 광네트워크인 국립과학재단망(NSFNET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etwork)을 무료로 하는 것과 같이 무료는 못 하더라도 저렴화하는 정책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溫故之新이나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라는 우리의 古語가 있어서 오늘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빛이 바랜 古語가 아니라 정보통신부가 생기고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정책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도 더 빛이 나는 新語라고 생각이 된다. 지난 날의 정보를 알고 상대방의 정보 및 우리들의 정보를 알면 세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세계의 흐름을 예측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중요성,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중요성은 세계화의 경쟁속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는 필수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95년의 새해를 맞는다. DC